

August 24, 2025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시편 51:1-2,10-12,16-17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켄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어땠는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꺼 같습니다.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제도 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과 좋은 배움으로 축복해주셨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제 삶과 사역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켄터키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 한가지만 나눌까 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Ark Encounter)* 를 방문한 경험입니다.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해 있고, 렉싱턴에서 북쪽으로 약 한 시간 거리입니다. 이곳은 2016 년에 개장한 이후, 매년 백만 명 이상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낙타를 탈 수 있다거나 동물원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재미있지만요. 이 곳의 특별함은 성경에 기록된 크기로 지어진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 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510 피트, 폭 85 피트, 높이 51 피트—미식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깁니다! 그 거대한 방주 앞에 서자 제 머릿속에 들어온 첫 생각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이걸 지을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방주 안을 걸으며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진정 사로잡은 것은 웅장한 방주의 크기도, 켄터키의 무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곧 진노가 실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시 노아의 시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5 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 (11-12 절). 그것이 노아의 세상이었습니다. 부패와 폭력, 경건하지 못함—오늘날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창 6:13-14). **노아는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눈앞에서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니, 더 이상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다면, 미래에도 하실꺼라는 사실** 말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두 번째 심판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벧후 3:6-10; 말 4:1; 살후 1:7-8; 계 20:9-15).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 24:36-39)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진노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찬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게 언제였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져야겠지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한 적이 언제였는가? 사실 이부분에 대해 많이 찢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만, 혹은 제가 마음 편하게 전할수 있는 말씀만 다룬다면, 저도 여러분도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나쁜 소식은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소멸할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하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죄를 심각하게 보게 합니다. 2) 거룩한 경외심을 키워줍니다. 3) 구원의 기쁨을 더욱 깊게 만끽하게 합니다.**

1.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심각하게 보게 합니다. 로마서 6:23 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때가 있지는 않던가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실수안하는 사람이 어딴어?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말야. 사람들 다그래!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던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것은 죄는 마치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작아서 방 안에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결국 주인을 잡아먹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파괴하고, 반드시 죽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크든 작든, 숨겨졌든 드러났든,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노를 쏟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기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해를 입는 것을 보고도 “나는 사랑이 많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뒷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 장 2 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참조: 고전 6:9-10; 엡 2:1-3). 히브리서 12 장 14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생각 속에서든, 습관 속에서든, 마음 속에서든—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 위에 임합니다.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하나님만큼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28-29 은 이렇게 말합니다. **“...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시라.”**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에 죄를 태워버리십니다. **2)**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십니다—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듯이, 마지막 심판도 불로 임한다고 합니다. **3)** 하나님은

영광으로 불처럼 나타나십니다—시내산에서 불과 연기로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혹은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A.W.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묵상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진노를 더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릴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혹은 무심하게 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전능하신 이, 알파와 오메가, 소멸하는 불—앞에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허상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경외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의 진노는 실제입니다.

3.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0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운명은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노가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무게가 원래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앞에 더욱 놀라움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건물에서 소방관이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살았다”는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에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5:21; 참조: 사 53:5; 요 3:16; 롬 5:8-9; 히 9:28)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롬 10:9-11)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옆에 문을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창 6:16). 단 하나의 문. 그 문을 통해서만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요 10:9). 방주 밖에는 죽음과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 그 한 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과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미리보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불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죄를 붙잡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습니다. 그 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일 1:9)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달라붙는다고 할찌라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요일 1:9; 행 3:19; 롬 10:9-10; 계 7:14, 17). 로마서 5:20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넘치고 값비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간절히, 끊임없이, 매 순간—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고, 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한 달 전, 존 맥아더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어제 캘리포니아의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추모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 가운데 그의 아들 매트가 아버지가 그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신실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두렵지 않다. 은혜가 내 죄 많은 마음을 압도했다. 선물이다! 놀라운 선물이다! 은혜는 죄를 밀어내는 가장 큰 힘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곤장 은혜의 심장부로 데려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운명은 진노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요 3:16).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기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관리하거나

안일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며, 크고 작은 내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51 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시 51:1-2)

그런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